

경제포커스

■ 서울시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윤형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부연구위원)

최태림(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원)

■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의 본질에 대한 이해

이동기(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울시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윤형호 부연구위원* younh@sdi.re.kr

최태림 연구원 tlchoi@sdi.re.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I. 2006년 경제전망

- 2006년도 경제전망 결과를 '2005년 12월 서울경제'에 발표하였음. 2006년 상반기의 경제흐름과 동향을 고려하여 기존 경제예측을 수정하고자 함.

II. 최근 서울경제동향

소비 관련 지표

- 서울의 대형소매점 및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2005년 하반기 이후 약 1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2006년 1/4분기에 증가폭이 2005년 4/4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지만, 동 기간에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와 백화점판매액지수는 각각 11.2%와 10.4%의 증가를 보여, 내수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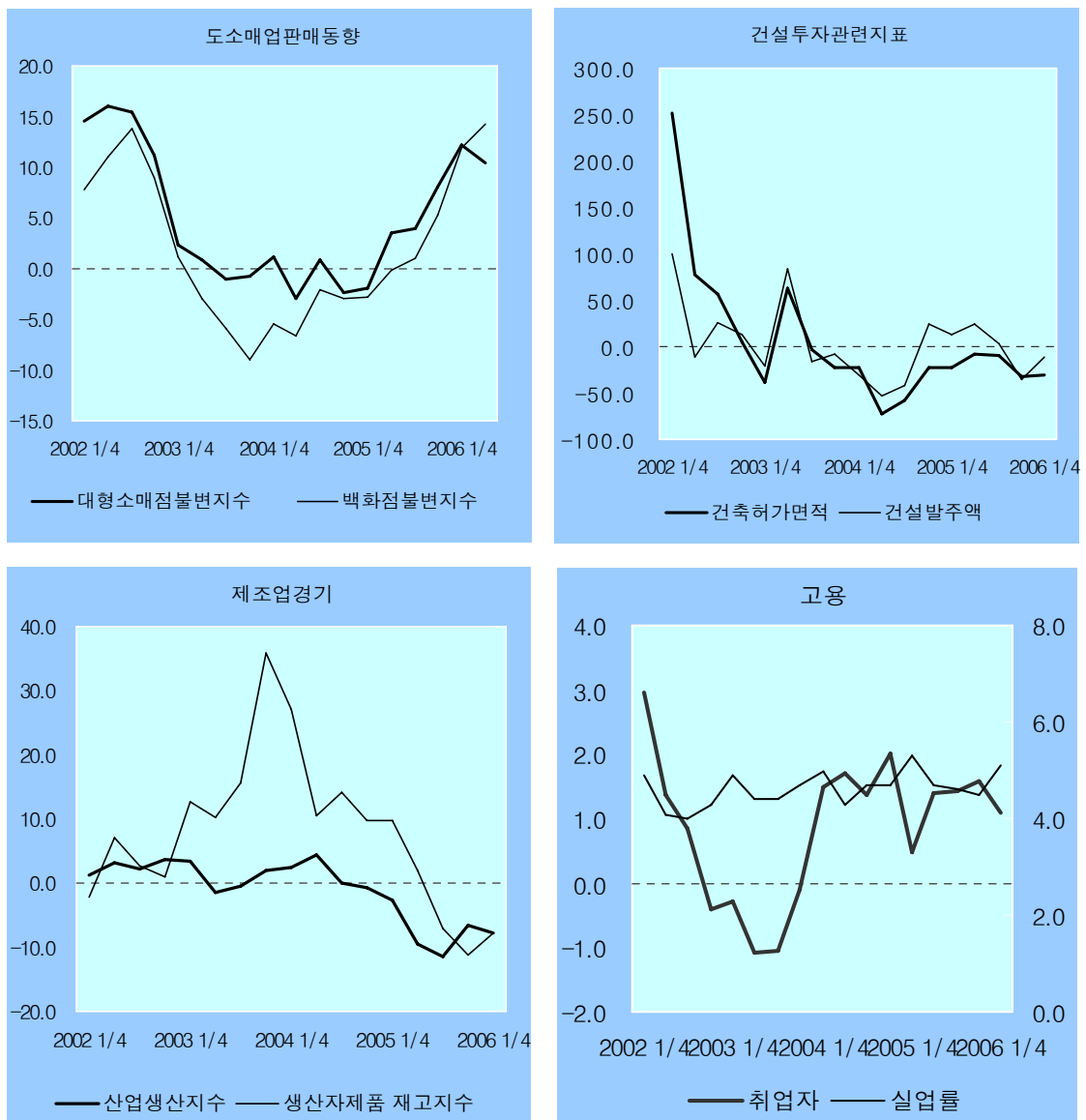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오레곤주립대 (Orego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조흥은행 심사역 차장 역임
- 서울시 산업특성화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12) 등

건설투자 관련 지표

○ 건설투자의 선행지표들은 모두 2005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인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건축허가면적은 2005 4/4분기에 33.1% 감소하고, 2006년 1/4분기에 30.3% 감소를 나타냄.
- 건설발주액은 2005년 4/4분기에 36.0% 감소하였고, 2006년 1/4분기에 10.9% 감소하였음.



<그림1> 서울의 경제지표 동향

제조업 경기

- 제조업 경기는 2005년 하반기 이후, 산업생산과 재고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산업생산지수는 2005년에 이어서, 2006년에도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음. 2006년 1/4 분기에 7.9% 감소함.
 - 생산자 제품출하지수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2006년 1/4분기에 11.4% 감소하였음.
 - 생산자 제품재고지수는 2006년 하반기에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음. 2006년 1/4분기에 7.7% 감소함.

고용

- 2006년 1/4분기의 서울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실업률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하였음.
 - 2006년 1/4분기 서울의 취업자수는 1.1% 증가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만명 정도 취업자가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2006년 1/4분기 5.1%를 나타내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0.2% 가량 감소하였음.

〈표 1〉 서울 경제지표의 증감율

(단위: %)

구분	2004			2005			2006		
	2/4	3/4	4/4	1/4	2/4	3/4	4/4	1/4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2.5	0.9	-0.8	5.2	5.5	9.0	13.6	11.2
	백화점 판매액지수	0.8	-2.3	-2.0	3.5	3.9	8.1	12.2	10.4
건설	건축허가면적	-72.6	-57.7	-23.2	-23.0	-8.4	-9.7	-33.1	-30.3
	건설발주액	-53.7	-42.1	24.1	13.7	23.9	2.8	-36.0	-10.9
경기	산업생산지수	4.3	0.0	-0.6	-2.6	-9.6	-11.4	-6.5	-7.9
	생산자 제품재고지수	10.5	14.1	9.8	9.8	2.0	-7.2	-11.2	-7.7
고용	취업자	1.7	1.4	2.0	0.5	1.4	1.4	1.6	1.1
	실업률	4.3	4.7	4.7	5.3	4.7	4.6	4.5	5.1

주: 지표의 비교시점은 전년동기임. 단, 실업률은 원지수임

Ⅲ. 한국경제 전망

최근 한국경제 흐름

- 2005년 1/4 분기 이후 내수회복과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로 인하여 경기회복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민간소비 관련지표인 도소매 판매액은 1/4분기에 3.6% 증가하여, 2005년 이후 지속된 내수회복세가 이어짐.
 - 수출은 세계경제의 견실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것 등에 의해 1/4분기에 10.7% 증가하여 상승세를 이어감.
- 하지만 원화가치 상승, 고유가 지속 등의 대외적인 경제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반기 이후 경기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 5월에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이란 핵문제, 미국내 원유 공급차질 우려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글로벌 달러약세,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 등의 원인으로 인해 원화강세 지속 전망. 하지만, 수출에 대한 환률탄력성이 하락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수출위축은 제한적 일 것으로 예상됨.

2006년 하반기 한국경제 전망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성장세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약 5% 가량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 회복세가 유지되고, 투자부진으로 인한 투자압력증가, 민간소비와 서비스 부문 회복세로 인해 설비투자의 높은 증가가 예상됨.
- 소비자물가는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인 2.7%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총수요압력이 크지 않고, 원화가치절상 등의 원인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실업률은 2005년 보다 조금 하락한 3.5%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실업률은 시차를 두고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IV. 서울경제 전망

- 서울의 2006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성장세 등으로 인해 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서울의 2006년 경제성장률은 국가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6-5.3%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민간소비는 2005년 상반기에 회복세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2006년에는 3.4%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내수경기 회복과 서비스업 경기 확대 등으로 인해 서울의 설비투자는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는 관련 선행지수들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2006년 중에 1.6%의 낮은 성장에 그칠 전망.

〈표 2〉 2006년 서울시 경제전망

(단위: 전년대비, %)

구분	서울경제	국내경제			
	SDI	KDI	삼성	LG	KERI
경제성장률	4.1	5.3	4.8	4.7	4.6
민간소비	3.4	4.8	4.3	4.2	4.5
설비투자	4.9	8.4	6.7	6.6	6.9
건설투자	1.6	1.6	1.1	0.9	0.9
고용	2.1	-	-	-	-
실업률	-	3.5	3.6	3.6	3.7
소비자물가	-	2.7	2.8	2.6	2.9

* 서울경제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전망을 기준으로 작성

- 서울의 2006년 총생산 증가율은 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업은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제조업은 0.2%의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서비스업은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5.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운수통신업도 6.2% 증가하여,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이에 비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2.5%, 건설업은 2.7% 성장하여 다른 업종에 비해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
- 제조업은 의류섬유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서울의 고용은 2006년에 2.1%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서비스업은 2.9% 가량 고용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제조업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는 4.2% 고용증가율을 나타내어,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운수 및 통신업도 상대적으로 고용창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표 3> 2006년 서울시 산업별 생산·고용 성장률

(단위: 전년대비, %)

구분	생산 증가율	고용 증가율
서울시	4.1	2.1
제조업	0.2	-4.5
의류섬유	1.7	-2.3
석유화학금속	-6.7	-8.4
기계제조업(정보통신, 컴퓨터, 정밀기기 포함)	0.9	-3.9
기타제조(자동차, 음식료 포함)	-4.5	-7.2
서비스업	4.5	2.9
전기가스수도	4.4	0.7
건설	2.7	1.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5	2.7
운수·통신서비스	6.2	2.9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5.9	4.2
공공행정 및 교육·사회보장	-1.3	0.9

V. 상반기 경제전망과 비교

- 2006년 초에 발표한 각 경제연구원의 경제성장률과 하반기에 수정 발표한 경제성장률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음. 서울경제 전망도 2006년도 초반에 발표한 4.1%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4〉 2006년 상반기 경제전망과 비교

(단위: 전년대비, %)

구분	서울경제	국내경제			
	SDI	KDI	삼성	LG	KERI
경제성장률	4.1 (4.1)	5.3 (5.0)	4.8 (4.8)	4.7 (4.6)	4.6 (4.9)
민간소비	3.4 (3.6)	4.8 (4.6)	4.3 (4.9)	4.2 (3.6)	4.5 (5.2)
설비투자	4.9 (5.4)	8.4 (8.5)	6.7 (6.5)	6.6 (6.8)	6.9 (7.7)
건설투자	1.6 (2.6)	1.6 (1.5)	1.1 (3.4)	0.9 (1.1)	0.9 (3.1)
고용	2.1 (2.2)	-	-	-	-
실업률	-	3.5 (3.7)	3.6 (3.6)	3.6 (3.5)	3.7 (3.8)
소비자물가	-	2.7 (3.1)	2.8 (3.6)	2.6 (3.3)	2.9 (2.9)

* 괄호안의 값은 각 기관이 연초에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임

VI. 2006년 하반기 서울경제와 정책방향

- 우리나라의 1/4분기까지의 지표는 경기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반기이후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민간소비의 비중이 높은 서울은 2003-2004년의 내수경기 침체의 시기에 경제성장률이 각각 0.3%와 0.8%를 기록하였음(2001년은 3.3%, 2002년은 8.0% 성장).
 - 따라서, 하반기 이후 경기 하락세가 실제로 나타날 경우, 서울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지역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됨.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일자리 창출 감소와 소비둔화로 이어져, 서울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 일자리 창출은 4%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경우에 대략 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2-3%로 떨어진다면, 서울의 일자리

증가는 5-7만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의 경제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산학협력사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출과 DMC, 공릉동 NIT 단지 개발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2006년에도 건설투자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 중 서울의 전략산업인 의류패션 산업과 지연(地緣) 산업인 인쇄 출판업에 대한 금융 및 인력개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참고문헌

-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 삼성경제연구원,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LG경제연구원, 「2006년 경제전망」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2006년도 시행계획(안)」